

#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방향성에 관한 탐구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22학번 이서진

## 1. 연구목적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함께 중소·벤처·창업 기업 지원이 정책적 차원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창업 지원 홍보는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증가시켜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에도 창업 기업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1]

하지만 ‘2020년 기업 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이 OECD에 속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한국은 창업기업 활성화가 지속된 기간이 짧아 창업기업 지원 정책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2]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정부 창업 지원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문제

어떤 요인이 **창업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가?

**어느 시기에**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

**무엇의 형태를** 가지는 창업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가?

## 3. 연구방법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자기자본순이익율’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자기자본순이익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건강한 기업임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순이익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로서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 ‘부채비율’을 분석의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3]

이외에 ‘2020 창업기업실태조사’ 항목 중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창업자의 창업 교육 경험 여부, 창업 이전 정부 출연금/보조금의 자금 조달 여부, 창업 이후 정부 출연금/보조금의 자금 조달 여부, 창업 이후 정부 융자/보증의 자금 조달 여부, 창업자의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창업 특허 보유 건수를 분석의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더불어 창업자의 업력(연차), 창업 횟수도 분석의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4]

끝으로, OLS 다중회귀분석 방법(둘 이상의 변수 간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자본순이익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회귀분석 결과에서 회귀계수 값은 해당 요인과 ‘자기자본순이익율’ 사이의 양(+) 또는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p값이 낮을수록 ‘자기자본순이익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며 p값이 낮은 요인**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Reference

[1] 김민서, 박철민, 정찬구, 정혜연, “COVID-19와 청년창업“, *한국창업학회지*, 7(1), pp. 47-69, 2022.

[2] 이경호, 하규수, “창업준비, 창업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20(4), pp. 333-342, 2022.

[3] 안영규, 지영한, “경영성과지표를 이용한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재무전략분석“, *경영교육연구*, 26(3), pp. 8-10, 2011.

[4] 배영민, 신혜리, “재창업 기술중소기업의 혁신특성 차이 및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21(3), pp.79-97, 2019.

기업 경영 효율성 평가 척도 중 ‘자산회전율’과 ‘부채비율’은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져 ‘자기자본순이익율’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p의 값이 0.1보다 작은 **‘자산회전율’ 요인만 ‘자기자본순이익율’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회귀계수 값<br>(Estimate) | P 값<br>(P value) | 비고 |
|--------------|----------------------|------------------|----|
| 매출액순이익율      | -0.0515              | 0.288            |    |
| <b>자산회전율</b> | <b>0.878</b>         | <b>p&lt;0.1</b>  |    |
| 부채비율         | 0.1275-e7            | 0.9679           |    |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을 대표한 요인 중 ‘기술이전을 시켜준 주체’, ‘창업자의 업력’, ‘창업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므로 ‘자기자본순이익율’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p의 값이 0.1보다 작은 **‘창업 이전 정부 출연금/보조금의 자금 조달’ 요인만 ‘자기자본순이익율’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회귀계수 값<br>(Estimate) | P 값<br>(P value) | 비고 |
|------------------------------------|----------------------|------------------|----|
| 창업자의 창업 교육 경험                      | 0.1375               | 0.1593           |    |
| <b>창업 이전 정부 출연금/<br/>보조금 자금 조달</b> | <b>0.434</b>         | <b>P&lt;0.1</b>  |    |
| 창업 이후 정부 출연금/<br>보조금 자금 조달         | 0.0428               | 0.8741           |    |
| 창업자의 산업재산권 보유                      | 0.0277               | 0.8698           |    |
| 창업자의 업력                            | -0.0187              | 0.281            |    |
| 창업자의 창업 횟수 2회                      | -0.041               | 0.623            |    |
| 창업자의 창업 횟수 6회                      | 0.1165               | 0.918            |    |
| 기업의 전체 특허 보유 수                     | 0.0048               | 0.835            |    |

## 5. 논의 및 결론

창업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창업 이전 정부 출연금/보조금의 자금 조달’**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창업자가 자금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많이 겪는 **‘창업 이전’에 지급하는 시의적절성과 비상환형 지원자금**으로서 수혜자가 상환의 의무 없이 더 적은 부담으로 지원 자금 사용이 가능한 ‘정부 출연금/보조금’의 특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창업 기업 존속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지원자금의 지급 시기와 형태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결과에 근거하여 **창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형태의 자금 지원 방식**을 효과적인 정부 창업 기업 지원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 외래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의료서비스 품질 요소와 환자관련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학번: 202021920    학과명: 행정학과    이름: 이지수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병원 급증 현상과 의료기관 간의 경쟁 심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향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서비스품질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고, 환자들을 만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환자 특성은 환자의 주관성이 들어간 서비스품질과 달리 객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환자만족도가 의료기관 평가의 지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관 간의 비교와 평가에 보정요인으로 작용하는 환자 특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주관성이 들어간 의료서비스 품질 요소와 함께 객관적 성격을 띤 환자의 개인적 특성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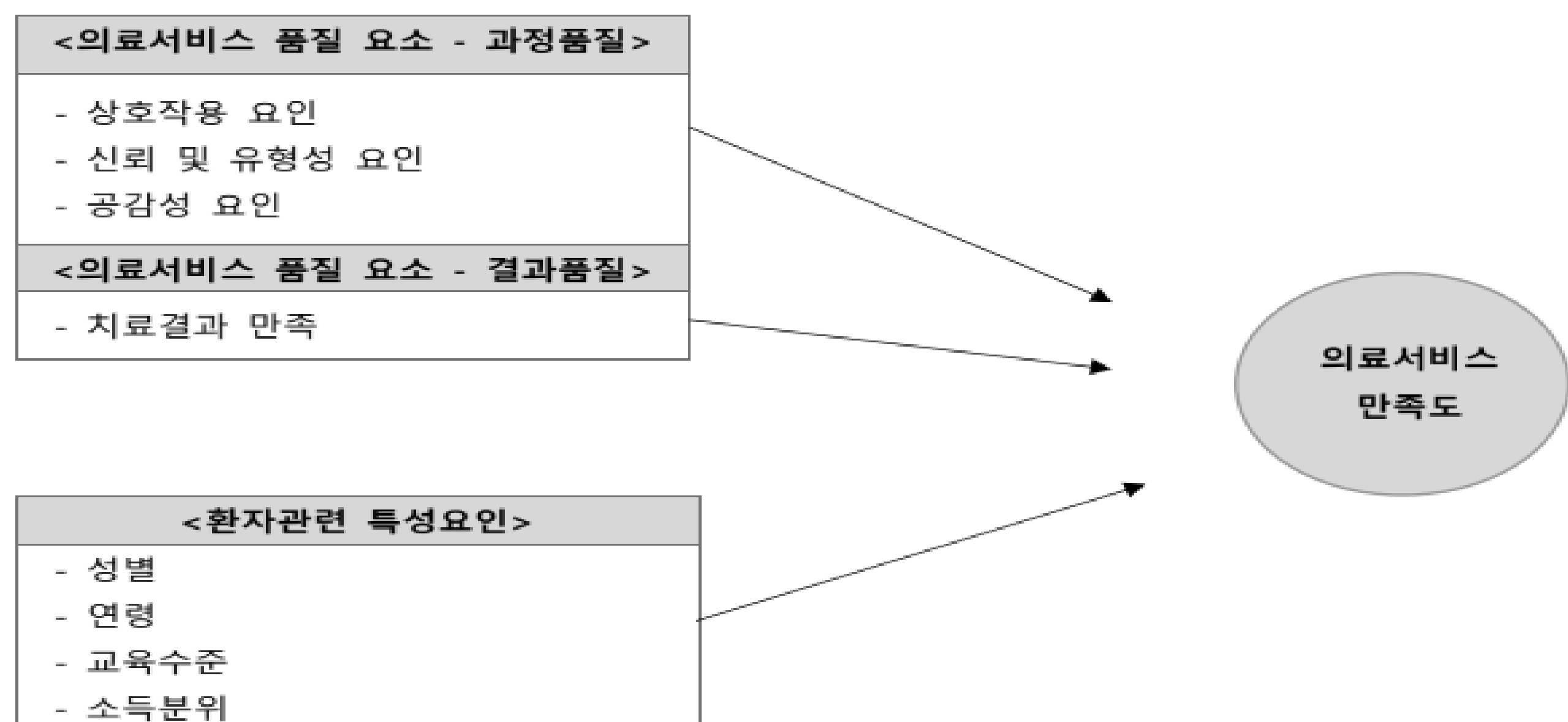
## 데이터 탐색 및 분석 결과

- 데이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2020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데이터'
- 분석대상: 외래 의료서비스 경험자 총7770명

### 1. 가설 설정

- ① 과정 품질은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② 결과품질은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환자관련 특성요인에 따라 의료서비스 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모형: 다중회귀모형



### 3. 상관관계 분석

|             | 상호작용 요인  | 신뢰성 및 유형성 요인 | 공감성 요인   | 치료결과 만족도 | 의료서비스 만족도 |
|-------------|----------|--------------|----------|----------|-----------|
| 상호작용 요인     | —        |              |          |          |           |
| 신뢰 및 유형성 요인 | 0.623*** | —            |          |          |           |
| 공감성 요인      | 0.625*** | 0.482***     | —        |          |           |
| 치료결과 만족도    | 0.397*** | 0.364***     | 0.306*** | —        |           |
| 의료서비스 만족도   | 0.428*** | 0.401***     | 0.343*** | 0.705*** | —         |

→ 의료서비스 품질요소의 모든 변수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남

## 결론 및 함의

- ▷ 의료서비스 품질요소에 해당하는 과정품질, 결과품질과 환자의 개인적 특성 중 소득분위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법: 환자 의견 반영,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환자에게 충분한 질문 기회 제공, 알기 쉬운 설명, 환자들의 신체노출과 개인정보 보호, 안락함 제공, 불안공감
- ▷ 연구 함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주관성이 담긴 의료서비스 품질요소 뿐 아니라 최근 의료기관 평가에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객관적 성격이 담긴 환자의 개인적 특성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4.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다른 회귀분석 결과

#### 1) 모형 적합도

모형: 의료서비스 품질요소와 환자관련 특성요인으로 구성  
환자관련 특성요인 기준 설정: 남성, 15~19세, 초등교육, 1분위

| Model | R      | R <sup>2</sup> | Adjusted R <sup>2</sup> | F      | p     |
|-------|--------|----------------|-------------------------|--------|-------|
| 모형    | 0.7414 | 0.54972        | 0.54879                 | 591.58 | <.001 |

→모형 적합도 F값: 3.41((p=<.001))

→의료서비스 만족도 설명력: 약 55%

#### 2) 분산분석(Omnibus ANOVA Test)

|             |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p      |
|-------------|----------------|------|-------------|----------|--------|
| gender      | 0.412          | 1    | 0.4123      | 3.748    | 0.053  |
| age         | 0.744          | 5    | 0.1488      | 1.352    | 0.239  |
| education   | 0.124          | 2    | 0.0622      | 0.566    | 0.568  |
| income      | 1.108          | 4    | 0.2770      | 2.518    | 0.039  |
| 상호작용 요인     | 9.341          | 1    | 9.3414      | 84.927   | < .001 |
| 신뢰 및 유형성 요인 | 10.044         | 1    | 10.0441     | 91.316   | < .001 |
| 공감성 요인      | 1.830          | 1    | 1.8299      | 16.637   | < .001 |
| 치료결과 만족도    | 576.854        | 1    | 576.8535    | 5244.482 | < .001 |
| Residuals   | 852.772        | 7753 | 0.1100      |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소득분위, 상호작용 요인, 신뢰 및 유형성 요인, 공감성 요인, 치료결과만족도

| Predictor         | Estimate(B)      | Stand. Estimate(β) | SE      | t      |
|-------------------|------------------|--------------------|---------|--------|
| Intercept         | 0.28667          |                    | 0.03362 | 8.527  |
| 여성-남성             | -0.01502         | -0.03042           | 0.00776 | -1.936 |
| 20~29세 - 15~19세   | -0.01750         | -0.03544           | 0.02950 | -0.593 |
| 30~39세 - 15~19세   | -0.04671         | -0.09460           | 0.02847 | -1.641 |
| 40~49세 - 15~19세   | -0.01149         | -0.02327           | 0.02726 | -0.421 |
| 50~59세 - 15~19세   | -0.02837         | -0.05747           | 0.02596 | -1.093 |
| 60세 이상 - 15~19세   | -0.02832         | -0.05736           | 0.02556 | -1.108 |
| 중등교육 - 초등교육       | -0.01052         | -0.02130           | 0.01234 | -0.852 |
| 고등교육 - 초등교육       | -0.00335         | -0.00678           | 0.01575 | -0.212 |
| 2분위 - 1분위         | 0.02735          | 0.05540            | 0.01212 | 2.256  |
| 3분위 - 1분위         | 0.03863          | 0.07825            | 0.01299 | 2.974  |
| 4분위 - 1분위         | 0.02932          | 0.05939            | 0.01307 | 2.243  |
| 5분위 - 1분위         | 0.02110          | 0.04274            | 0.01310 | 1.611  |
| 상호작용 요인           | 0.10764          | 0.10652            | 0.01168 | 9.216  |
| 신뢰 및 유형성 요인       | 0.09898          | 0.09619            | 0.01036 | 9.556  |
| 공감성 요인            | 0.02962          | 0.04084            | 0.00726 | 4.079  |
| 치료결과 만족도          | 0.64914          | 0.62090            | 0.00896 | 72.419 |
| R2 (Adjusted R2 ) | 0.54972(0.54879) |                    |         |        |
| F                 | 591.58***        |                    |         |        |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환자 관련 특성 요인: 소득분위
- 과정품질: 상호작용 요인, 신뢰 및 유형성 요인, 공감성 요인
- 결과 품질: 치료결과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치료결과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감성 요인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202021966 이나현

## 연구배경 및 목적

-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와 인지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여러 부적응 문제를 겪기도 함.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는 크게 외부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외현화 증후군(공격성, 싸움 등)과, 내부로 향하여 나타나는 내재화 증후군(우울, 불안 등)으로 나뉨.
- 청소년의 문제는 다양한 환경 맥락의 영향을 받아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남. 또한 외현화 및 내재화 증후군은 공병하거나 상호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기도 함. 따라서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공통적 또는 차별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중 하나인 공격성과 내재화 문제 중 하나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환경 맥락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특히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가 서로 관련이 깊다는 기존의 연구들에 기반하여, 공격성과 우울의 상호영향을 통제한 상태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공격성과 우울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고자 함.

##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청소년의 교사관계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공통적 또는 차별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5.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우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선행연구 검토

### 1.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우울, 외현화 문제 등에 중간 이상의 영향(박미애 등, 2013; 진혜민 & 배성우, 2012; 김선미 등, 2012).
-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아지고, 거부적일수록 공격성이 높아짐(김재엽 & 정윤경, 2007)
-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밀관적이고, 거부적이고, 강요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아짐(조정숙 & 박경애, 2021)
- 부모의 낮은 돌봄과 높은 과잉간섭은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킴(김보경 & 민병배, 2006)
- 부모의 애정은 남녀 청소년의 우울을 부적으로 예측(문경주 & 오경자, 2002)
- 부모의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을 직접적으로, 또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증가시킴(임금옥, 2017).

### 2. 친구관계

-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영향(이영애 & 정현희, 2015)
- 또래애착과 같은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조민규 등, 2014)
- 또래일탈과 같은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김재철 & 최지영, 2010; 이승환 & 김은정, 2018)
- 청소년의 친구관계 문제는 남녀 청소년 모두의 우울 및 불안을 정적으로 예측(이해경, 2013).

### 3. 교사관계

- 교사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은 청소년은 외재화 및 내재화 문제를 적게 보인 반면, 교사와의 관계 수준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들은 내재화 문제보다 외현화 문제에 취약(정현희, 2016)

##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중1 패널 데이터 2차년도 자료
- 중학교 2학년 학생 2,438명(남 1,318명, 여 1,120명)

### 2. 측정도구

- 1) 공격성: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조봉환 & 임경희, 2003)
  - KCYPs2018에서 일부 수정 및 보완
  - 리커트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2) 우울: 간이 정신진단 검사의 우울척도(김광일 등, 1984)
  - KCYPs2018에서 일부 문항 제외하고 수정
  - 리커트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3)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김태명 & 이은주, 2017)
  - 6개 하위요인: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 리커트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4) 친구관계: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배성만 등, 2015)
  - 2개 하위요인: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 리커트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5) 교사관계: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김종백 & 김남희, 2009)
  - 4개 하위요인: 접근가능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
  - 리커트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3. 자료분석

통계분석 프로그램 Jamovi 2.2.5.0 사용

- 1) 주요 변인 대상 기술통계 및 성차 확인(독립표본 t검정)
- 2) 주요 변인 대상 상관분석
- 3) 위계적 회귀분석
  - 1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거주지) 통제
  - 2단계: 종속변인이 공격성일 때에는 우울을, 우울일 때에는 공격성을 통제
  - 3단계: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하위변인을 투입하여 영향력 탐색

## 연구결과 및 논의

|   | 공격성      |           | 우울        |          |
|---|----------|-----------|-----------|----------|
|   | <i>B</i> | <i>β</i>  | <i>B</i>  | <i>β</i> |
| 부모의 양육태도  |          |           |           |          |
|   | 자율성 지지   | .02       | -.06*     | -.06*    |
|   | 거부       | .04       | .10***    | .11***   |
|   | 강요       | .05**     | .00       | .00      |
|   | 비밀관성     | .08***    | .05*      | .05*     |
| 친구관계  |          |           |           |          |
|   | 긍정적 관계   | .01       | -.11***   | -.09***  |
|   | 부정적 관계   | .24***    | .07***    | .07***   |
| 교사관계  |          |           |           |          |
|   | 접근가능성    | -.05*     | -.05*     | -.05*    |
|   | 수용성      | -.01      | .07**     | .07**    |
| <i>F</i>  |          | 136.37*** | 128.10*** |          |
| <i>R</i> <sup>2</sup> (Adjusted <i>R</i> <sup>2</sup> ) |          | .52 (.51) | .50 (.50) |          |

주 1. \*  $p < .05$ , \*\*  $p < .01$ , \*\*\*  $p < .001$

주 2.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 중, 공격성 또는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던 변인의 결과만 제시

###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우울

-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밀관적, 강요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공격성 증가
-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밀관적, 거부적, 자율성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증가
- ✓ 선행연구와 달리 거부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우울의 영향을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 ✓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가 서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임

### 2. 친구관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우울

- 부정적 친구관계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공격성과 우울이 모두 증가
- 긍정적 친구관계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감소
- ✓ 똑같이 친구의 질이 좋지 않더라도, 그 원인이 부정적인 친구관계가 많은 것인지 긍정적 친구관계가 적은 것인지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 청소년의 문제의 특성에 따라 친구관계에 다르게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 3. 교사관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우울

- 교사에게 접근하기 쉽다고 지각할수록 공격성과 우울이 모두 감소
- 교사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우울 증가
- ✓ 접근가능성이 높을수록 공격성과 우울이 감소하는 것은, 청소년이 교사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
- ✓ 교사의 수용성과 청소년의 우울을 조절 및 매개하는 다른 변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

### 4.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공통적 및 차별적으로 기여하는 요인

- 공통적으로 영향: 부모의 비밀관성, 부정적 친구관계, 교사와의 접근가능성
- 공격성에만 영향: 부모의 강요
- 우울에만 영향: 부모의 거부, 긍정적 친구관계, 교사의 수용성, 부모의 자율성 지지
- ✓ 공격성과 우울의 상호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두 문제가 공통요인의 영향을 받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
- ✓ 공격성과 우울 각각의 문제에 차별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이 발견된 것은,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문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

### 5.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우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청소년의 공격성에는 부정적 친구관계가 가장 큰 정적 영향
- 청소년의 우울에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가장 큰 정적 영향
- ✓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서로 다름
- ✓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친구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 반면 우울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의의 및 한계점

### 1. 의의

- 1) 공격성과 우울이 인과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과 더불어, 두 문제가 공통적인 원인에 의해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 2) 가정과 학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맥락에서 청소년의 문제에 기여하는 요인을 살펴봄
- 3) 청소년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발달의 조절 및 매개변인 탐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2. 한계점

- 1) 자기보고 응답방식으로 편향의 가능성이 있음 → 다른 방식으로도 측정해볼 필요
- 2)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됨 → 다양한 표본대상 추가연구 필요
- 3) 횡단적 연구 → 인과관계 및 발달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종속적 연구 필요





# 불안정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SNS중독경향성의 매개효과

## 심리학과, 팀 우제

### 서론

높은 불안정 성인애착 -> 낮은 대학생활적응,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표현력, 암울한 관계 (정은수, 2014)  
높은 불안정 성인애착 -> SNS중독경향성 증가 (이선경, 김정규, 2019)  
높은 SNS중독경향성 ->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영향 (나은선, 장현정, 2021)  
따라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영향을 끼치는 이유에 SNS 중독경향성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 이론적 배경(불안정 성인애착)

**성인애착:**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 된 것이며 상호적인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선호하는 특정인에게 근접성을 유지하는 경향성

**불안정성인애착:** Brennan, Clark & Shaver(1998)가 이전에 만들어졌던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종합하여 성인애착을 크게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으로 분류하고, 안정형애착을 제외한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 불안차원은 분리와 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차원이며 회피차원은 친밀감과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의미.

### 이론적배경(SNS중독 경향성)

**SNS:**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 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의 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되며(한국 인터넷진흥원. 2009) SNS가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 간 연결된 관계가 누적됨으로써 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와 차별점

**SNS중독:** Kuss & Griffiths(2011)는 SNS를 과다 사용하면 금단과 내성을 갖게되며 의존증, 집중력 저하, 강박 등 정신적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SNS를 중독의 범주에 편입

### 이론적배경(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 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

**대학생활적응의 종류**

- 1. 대학적응:**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 2. 사회적 적응:**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와 대학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측정하는 것
- 3. 정서적 적응:**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문제 등을 측정하는 것
- 4. 대학환경적 적응:** 대학에 대한 유대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

### 가설

**연구문제 1.** 불안정 성인애착, SNS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1-1.** 불안정 성인애착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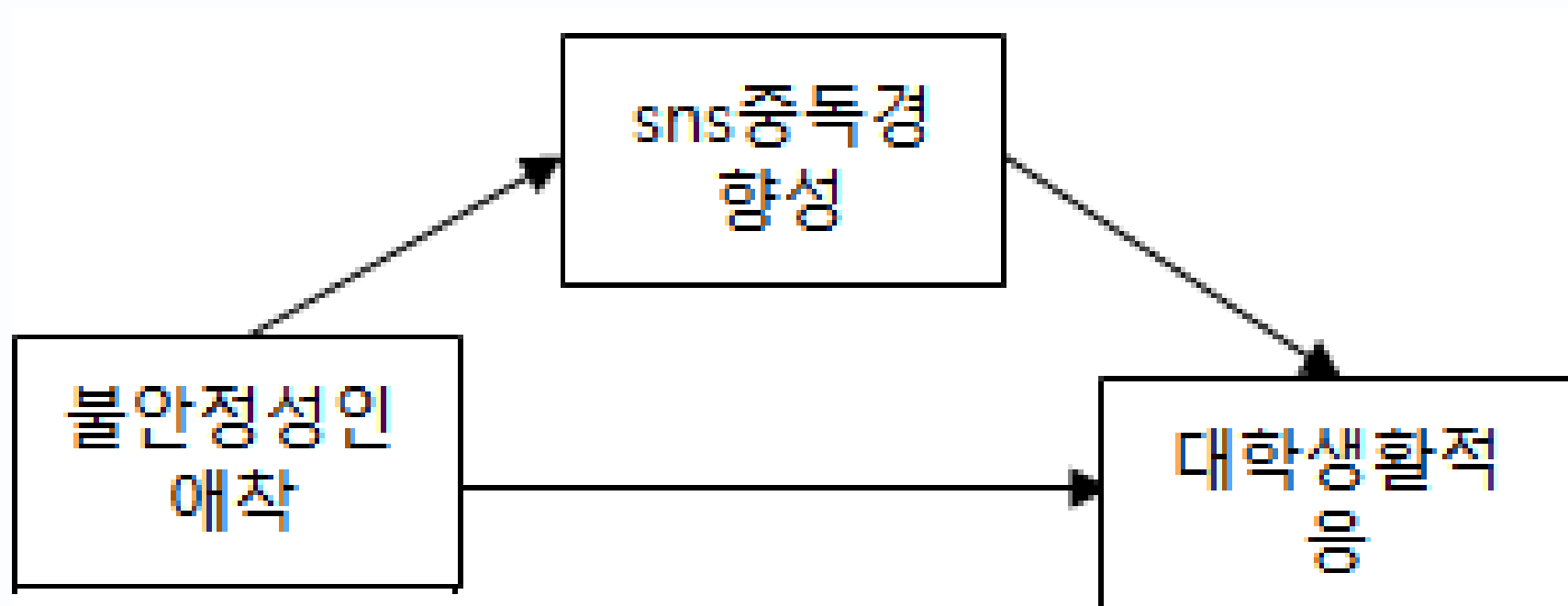
**가설 1-2.** 불안정 성인애착은 SNS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SNS 중독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불안정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SNS 중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설 2.** 불안정 성인애착은 SNS 중독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모형



### 참고자료

나은수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은선,& 장현정. (2021). SNS 중독 경향성 및 대인관계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8(4), 1070-1080.  
이선경,& 김정규 (2019). 불안정성인애착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정서 행동장애연구, 35(3), 317-334.

###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1대학생활적응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가외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하나,** 불안정성인애착, SNS중독경향성,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불안정성인애착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셋,** SNS중독경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넷,** 불안정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SNS중독경향성을 매개로 불안정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bootstrapping을 5000번 실시하였다.

### 결과

|      | 학번       | N  | M    | SD   | t     |
|------|----------|----|------|------|-------|
| 대학적응 | 코로나 학번   | 62 | 3.39 | .618 | -.680 |
|      | 코로나 전 학번 | 34 | 3.46 | .471 |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대학적응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력 검증

|          | B    | $\beta$ | t       | F       | R    | R <sup>2</sup> |
|----------|------|---------|---------|---------|------|----------------|
| 불안정 성인애착 | .259 | .296    | 3.003** | 9.016** | .296 | .088           |

종속변인: SNS중독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불안정성인애착이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회귀분석 결과

|       | B     | $\beta$ | t         | F         | R    | R <sup>2</sup> |
|-------|-------|---------|-----------|-----------|------|----------------|
| SNS중독 | -.343 | -.421   | -4.494*** | 20.200*** | .421 | .177           |

종속변인: 대학생활적응 \* $p < .05$ , \*\* $p < .01$ , \*\*\* $p < .001$

|          | B     | $\beta$ | t        | F         | R    | R <sup>2</sup> |
|----------|-------|---------|----------|-----------|------|----------------|
| 불안정 성인애착 | -.383 | -.506   | -6.15*** | 37.892*** | .506 | .287           |

\*종속변인: 대학생활적응 \* $p < .05$ , \*\* $p < .01$ , \*\*\* $p < .001$

표 6. 불안정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회귀분석 결과

| 경로분석         |              |        |       |        |     |      |         |        |
|--------------|--------------|--------|-------|--------|-----|------|---------|--------|
| 경로           |              | B      | se    | t      | p   | LLCI | ULCI    |        |
| 불안정성인<br>애착  | sns중독경향<br>성 | 0.259  | 0.086 | 3.003  | **  | .01  | 0.0877  | 0.4301 |
| sns중독경향<br>성 | 대학생활적응       | -0.234 | 0.078 | -3.313 | *** | .001 | 0.3750  | -0.939 |
| 불안정성인<br>애착  | 대학생활적응       | -0.382 | 0.062 | -6.149 | *** | .001 | -0.5061 | -0.259 |

\*  $p < 0.05$ , \*\*  $p < 0.01$ , \*\*\*  $p < 0.001$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7. 불안정성인애착, sns중독경향성, 대학생활적응의 경로간 bootstrapping 결과

| 부트스트래핑결과 |          |        |        |        |          |          |
|----------|----------|--------|--------|--------|----------|----------|
| 독립변수     | 매개변수     | 종속변수   | Effect | BootSE | BootLLCI | BootULCI |
| 불안정성인애착  | sns중독경향성 | 대학생활적응 | -.0670 | 0.0305 | -0.1310  | -0.025   |

표 8. SNS중독의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sns중독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대학생 9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불안정 성인애착과 sns중독성, 대학생활적응은 각 .01 수준 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안정 성인애착이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 sns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두 유의미하며, 불안정 성인애착이 sns중독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sns중독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였다.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해,

sns중독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을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인공지능, 민주주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 여론조작 가능성을 중심으로 -

## 서론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정치 분야에도 영향을 준다.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정치 분야에서 정치 생활과 정치적 소통과정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연구이다. AI는 정치 분야에서 활용되며 선거 과정이나 정치활동에서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대중조작을 통하여 정치적 담론, 정치적 정서, 투표 등을 조작해 여론과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타겟팅과 딥페이크는 정치에 인공지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소통을 방해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정치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은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인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치적 악용은 민주주의에 해를 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치 엘리트 집단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정치를 조작해 오고 있다. 본론에선 AI 기술로 인해 정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 본론 1. AI의 편향성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며 가져오는 다양한 이점과 별개로 데이터의 편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간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인간 수준의 사고를 하는 방식이기에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는 상호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구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집합을 활용해 훈련된다. 이 데이터 집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판단을 내리는데, 편향된 데이터 집합을 토대로 구축된 시스템은 훈련 중에 노출되지 않은 유형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선 성능이 저하되고 최적화되지 않은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를 인공지능의 편향성이라고 한다.

### -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의 중요성 -

국내 한 회사에서 제작한 스무 살 여대생으로 설정된 인공지능 챗봇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챗 봇과 대화를 하며 부지불식간에 인간과 AI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능 높은 인공지능이 혐오와 차별, 편향 발언을 하면 사용자들은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특히 미성숙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경우 옳고 그름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영향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는 대두되고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 인공지능이 편향성을 가지는 원인 -

첫째, 데이터 자체의 오염이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에 편향된 정보들이 섞여 오염 데이터들이 학습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데이터 라벨링 과정, 학습과정, 생산 및 배포 등 전 과정 모두 인간의 편견이 개입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즉, 인공지능 제작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 셋의 불균형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 의존도가 높다. 사회적 상황과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데이터의 양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A 집단에 대한 데이터는 방대한 반면, B 집단에 대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B 집단에 대한 학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확도나 성능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A 집단에게 최적화된 기술이 되어버리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인공지능은 편향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 본론 2. 여론을 조작하는 AI 기술

### ① 마이크로 타겟팅

마이크로 타겟팅이란 유권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이들의 관심사를 파악해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이러한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은 실제로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 사용하여 성공을 거둔 뒤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 - 정치적 문제점 -

첫째, 유권자가 편향된 사고를 하도록 이끈다. 기존 성향과 관련된 정보만을 보게 만들어 유권자의 확증편향을 강화한다. 소셜 봇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무관심한 정보, 반대성향의 의견을 차단하여 다양한 사고를 할 기회를 없애며,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방해한다. 유권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나눈다. 하지만 소셜 봇은 사이버 괴롭힘을 통해 반대 정치 성향 이용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제어하기도 한다. 즉, 유권자들 간의 정치적 소통을 왜곡하는 것이다.

셋째, 가짜뉴스·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를 선동한다. 소셜 봇을 이용하여 가짜 댓글, 게시물, 팔로우, 좋아요 등을 통해 가짜 여론을 형성한다. 또한 국민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트려 이슈에 대한 집중을 흐리게 만든다.

넷째, 유권자 간 정보 불평등이 심화된다. 선거캠페인으로 유권자를 분석하여 선거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의 전략적 유권자층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유권자에게는 자원을 소비하지 않는다. 엘리트의 표적 목표가 아닌 유권자층은 선거에서 소외되고 정치적 무관심을 높인다.

다섯째, 정치적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 시민의 선호와 가치를 추적함으로써 민주시민이 가진 비밀투표, 자유로운 투표권의 행사, 익명의 발언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정치 감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대량의 유권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 역시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딥 페이크

딥 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딥 페이크 콘텐츠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 - 정치적 문제점 -

딥 페이크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가짜 뉴스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딥 페이크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원본 콘텐츠와 딥 페이크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이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유권자는 각 후보들과 정당의 공약을 비롯한 정보들을 접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대표자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딥 페이크 영상이 악용되어 유포된다면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렵고, 유권자들은 거짓된 정보로 인해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2018년 시민들이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 벨기에의 '다른사회당'이 공식 SNS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딥 페이크 영상을 공유하며 대두되었다.

## 결론 및 의의

인간은 기술의 어두운 이면을 뒤로한 채 긍정적인 측면만을 바라본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기술의 도입을 주장하지만 새로운 산업 분야에 도입되고 사용화 되기 위해선 기술의 어두운 이면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부에선 앞서 살펴봤던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편향성의 큰 원인인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성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합성 데이터는 실제 환경에서 수집되거나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사물/사건/사람을 기반으로 얻은 데이터보다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데이터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의존도가 상당히기에 데이터의 편향 정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일정 수치 이상 편향되었을 경우, 데이터 셋에서 제외시키는 등 중립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기술도 발전시켜 접목한다면 기존 민주주의를 훼손하던 편향된 인공지능 기술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 가짜뉴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제도적 차원의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EU의 경우 개인의 잊힐 권리를 강조하며 딥 페이크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정보조작대처법 등을 신설하여 법제화 작업을 구현했다. 한국 역시도 강화된 법률이 필요하다.

기술은 한 번 도입되면 되돌아가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비행기를 없애지 않듯,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일깨워주는 것에 큰 의의를 지닌다.